

508 빌레몬서 1장,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

오늘은 순서에 따라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이며, 특히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 역시 같다. 골로새서가 골로새교회 앞으로 보내진 공적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교회의 평신도 가운데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 서신이다. 그렇다면 본 서신의 전달자 역시도 두기고로 볼 수 있다. 당시 바울이 골로새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이와같은 개인 서신을 보낸 목적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함이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다.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 달아났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린 종이였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 죽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을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전도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전도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된다.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도망친 노예였으나, 바울이 그를 본 서신 12절에서 ‘심복’ 이라고 하며,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4:9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라고 소개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 바울로서는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곁에 두어 자신의 전도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였으나, 선한 일이 역지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는 이 서신을 함께 보낸다. 본 서신이 성도에게 회람되고, 신약성경에까지 포함 된 것을 볼 때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듯 이 짧은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용서의 사랑과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형제애가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1차로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던 기간 중인 A.D.62-63년경으로 추정되고, 수신자는 골로새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다.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과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로 받아들여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본서의 핵심적 내용이다. 전체가 단 1장으로 이루어진 본 서신은 내용적으로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3등분 할 수 있다.

- 1-7절, 도입부
- 8-21절, 본론부
- 22-25절, 종결부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여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 따뜻한 어조로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1:1-3,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 및 축도

1장 1절 발신자를 표기한다.

1장1절上: 그리스도 예수(님)를 위하여 ...

→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1장1절上: 그리스도 예수(님)를 위하여 (로마에)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

→ 이처럼 발신자를 표기하면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다. 줄친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정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나’였다.

1장1절下: ...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강조표시하자.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수신자가 빌레몬임을 표기하고 있다. 빌레몬은 사유 노예를 소유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1-2절을 보면, 빌레몬은 자신의 넓은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 3세기 전까지는 교회의 단독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2절에 언급된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골로새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심한 핍박 때문에 예배드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과 손해가 따랐음에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중에 ‘사랑받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는 골1:7 골로새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 골4:7 자신의 사역을 도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전달자 역할을 해준 두기고, 골4:9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골4:14 자신의 주치의였던 누가를 향하여 ‘사랑받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선교 사역에 헌신적인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빌레몬에게 ‘사랑받는’이라는 설명이 붙여진 것도 그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와 전도에 매우 헌신적인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조표시한 ‘동역자’라는 표현도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와 전도에 동역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참된 동역자는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

1장2절: 자매 (빌레몬의 아내)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빌레몬의 아들)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노니

→ 줄을 친 ‘함께 병사 된’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함께 군사 된 전투’라는 문자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탄의 세력과의 맹렬한 전투에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동지를 나타낸다. 바울은 이미 아킵보에 대해서 골로새서 4:17에서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다. 빌레몬의 아들 아킵보는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서원의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가 된 인물로 추정된다. 골로새서 4:17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는 라오디게아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제 3절은 축도이다.

1장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4-7,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4-5절)와 빌레몬을 위한 기도(6절)와 칭찬(7절)

1장4-5절: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 주 예수(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 4-5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몬1:4-5, 새번역) 4.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그 이유는)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선’ 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두’ 의 원형 ‘아가도스’ 는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 을 가리킨다.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유일한 진리인 성경 66권을 바르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요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1장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 개역개정 성경의 6절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처럼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상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교자와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때 늘 성실한 자세로 성경의 원래의 뜻을 공부하고 탐구해야만 한다. 6절을 헬라어 원문을 따라 바르게 다시 번역하면,

(몬1:6, 헬라어 원문 의미로 재번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하도록 기도하노라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즉 바울은, 빌레몬이 이해하고 깨달은 모든 진리를 따라 아름다운 용서와 교제의 손길을 도망친 그의 종 오네시모에게 내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1장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빌레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 7절은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다. 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부유했던 빌레몬이 A.D.60-61년쯤에 발생했던 지진의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은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2번의 큰 지진으로 산업의 터전을 잃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있던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빌레몬이 물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빌레몬의 사랑 실천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음을 7절을 통해 밝히고 있다.

1:8-21,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밝히는 본론부

1장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1장9-10절: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대략 60세정도가 된)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에)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빌레몬) 간구하노라

→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잠시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은 도망친 노예이므로 자신이 로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 속에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마도 오네시모에게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써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장11절: 그가 전에는 (빌레몬)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거듭나고 중생하여서)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 ‘오네시모’ 는 ‘유익한’ 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당시 주인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노예들에게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었다. 본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 이름과 반대로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난 무익한 종이었지만,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 더욱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이름대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다. 우리도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여! 우리도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1장12절: (빌레몬)네게 그를(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 ‘심복’ 을 새번역은 ‘마음’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는 내 마음이라’ 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 ‘심복’ 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나’ 는 7절에서 ‘마음’ 으로 번역된 단어로, 본래는 ‘창자,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다. 당시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켜 그 자신의 ‘스플랑크나’ 라고 부르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진실하게 전도사역을 돕는 오네시모에게 마치 아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장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내 복음 전파, 선교사역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빌레몬)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 바울이 빌레몬 정도면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동역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 그 오네시모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런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1장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 14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몬1:14, 새번역)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하기를 원했다. 성숙한 교역자들의 목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1장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도망갔던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 15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

(몬1:15, 공동번역)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 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의 도주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고의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음을 바울은 나타낸다. 오네시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장16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 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 16절에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의 요지가 잘 드러난다.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로 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순한 형제로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1절에서 빌레몬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 형용사로,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헌신적인 일꾼! 사랑받는 형제! 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변화되고 성장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 역시 종의 신분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줄 것을 겸손히 부탁하고 있다. 바울은 당시 보편적인 주종관계 윤리를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기독교 윤리를 요청하고 있다.

1장17-18절: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마치 바울) 내게 하듯 하고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의 걸림돌이 될만한 문제, 즉 물질적 손해 배상의 문제를 언급한다. 18절을 통해 과거 오네시모가 도주할 때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는 것은, 오네시모가 빚진 돈을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뜻이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가 단지 회개와 용서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원리를 따라 죄에 대한 변상과 보상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말만을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서슴지 않는 헌신의 자세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에게 변상해야 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자신이 직접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을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1장19절上: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

→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 자신이 갚겠다는 사실을 못 박는 것이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사실을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여 입증하는 것처럼, 자신의 친필로 입증하고 있다.

1장19절下: ...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빚진 자)

→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하신 건지? 말씀을 하지 않은 건지? 헛갈립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

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19절 후반절에 ‘복음에 빛진 자’ 라고 적어두자.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가고 있다. 이제 바울은 본 서신의 본론부를 마무리 짓는 20-21절에서,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피력한다. ‘오 형제여’ 뒤에 느낌표 추가하자.

1장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1장21절上: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

→ 이 ‘순종’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울의 권면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장21절: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자발적으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자발적으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본절의 이러한 바울의 확신으로 짐작하건대, 본 서신에는 결말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베풀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사 시대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 의 서신에 의하면 ‘오네시모’ 가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인물이 동일인물이라면, 바울 사도의 애정 어린 편지와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이전의 도주 노예를 훗날 에베소교회의 감독, 에베소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이다.

1:22, 석방 이후의 숙소 예비와 기도 요청

바울은 이제 자신이 무죄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곧 풀려나게 될 것과, 풀려나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될 것을 예견하며 숙소를 준비해 줄 것과 그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1장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1:23-25, 끝맺는 문안 인사와 축도

1장23-24절: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골로새교회 담임교역자) 에바브라와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이들은 모두 지난시간 골로새서의 종결부에서 만났던 인물들이다.

1장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처럼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과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는 고차원적인 윤리와

관용을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서 도주했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10절 갇힌 중
에서 낳은 아들, 11절 나와 네게 유익한 자, 12절 내 심복, 16절과 골4:9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라고
칭찬과 인정을 아낌없이 받았던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운 후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그 자신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
고, 오네시모가 빚진 돈을 자신이 직접 갚겠다는 등 영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
다. 본서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애썼던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신
실한 모습을 한 주간동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빌레몬서 1장

- 골로새서가 골로새교회 앞으로 보내진 공적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 서신**이다.
-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과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로 받아들여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부탁**이 빌레몬서의 핵심적 내용이다.
- 빌레몬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선교와 구제에 매우 헌신적인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따라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것을 기도한다.
-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난 ‘무익한 종’이었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하고 성장하였음을** 밝힌다.
- 바울은 성숙한 목양법으로 빌레몬이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의로 하도록** 안내한다.
-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도주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차원에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바울은 헌신적인 일꾼으로 변화·성장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 역시 ‘노예’의 신분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겸손히 부탁한다.
- 바울은 당시 보편적인 주종관계(主從關係) 윤리를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기독교 윤리**를 요청한다.
-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상금을 대신 갚겠다는 **자기희생적 자세로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
- (몬1:21)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자발적으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 21절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간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를 소망한다.
-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서 도주했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10절)’, ‘나와 네게 유익한 자(11절)’, ‘내 마음(12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16절, 골4:9)’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운 후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변화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과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는 고차원적인 윤리**를 실천하게 된다.
-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본서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고, 오네시모가 빚진 돈을 대신 갚겠다는 등 영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서신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